



삼국유사 인물학 여행(遊行)

영재가 「우적가」를 지은 까닭은?

칼부림하는 신라사회의 교화 방편

1. 신라 중대의 왕권 정립

통일신라 이후 정치를 주도했던 진골들은 점차 김씨 정계와 방계들로 굳어져갔다. 이들이 각축하면서 신라 정국은 불안해져 갔다.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경덕왕(景德王)은 후사가 없자 왕은 표훈대덕으로 하여금 하느님(上帝, 天帝)께 청해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표훈(表訓)은 하늘로 올라가 하느님께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하느님 말씀이 떨어지면 될 수 있으나 아들은 안 된다고 하시더이다.”

왕은 말하였다. “땀을 아들로 바꾸어 주기 바라오.”

표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청하자 하느님이 말했다.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아들을 낳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표훈이 하늘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에 하느님이 다시 불러 말했다.

“하늘과 인간 사이를 문란케 할 수는 없다. 지금 내가 이웃마을 다니듯 하늘을 왕래하여 하늘의 비밀을 누설시키니 금후 다시는 다시지 말라.”

표훈이 내려와서 하느님이 하는 말로써 전하자 왕이 말하길 “비록 나라가 위태롭더라도 아들 자식이 나 얻어 뒤를 이었으면 그만이었다”고 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만월(滿月)왕후가 태자를 낳았다. 경덕왕이 승하한 이후 여덟 살의 어린 태자가 왕으로 즉위하니 곧 혜공왕(惠恭王)이다. 재위 초년부터 표훈대덕의 말대로 두 개의 해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었으며, 세 별이 떨어지고, 비어삭이 쌀로 변하는 등 이변이 일어났다. 혜공왕 4년 봄에는 혜성이 나타나자 일길찬 대공(大恭)이 그 아우 아찬 대령(大寧)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왕궁을 33일 동안 포위했지만 왕궁에 패했다. 혜공왕은 대공의 구족을 배어 죽였으며 그의 재산을 모두 대궐로 실어 날랐다. 난 중에 신성(新城)의 큰 창고에 불에 타기도 했다.

반란이 완전이 진압되기까지는 석달이 걸렸는데 이 당시 북이 베인 자는 셀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혜공왕 16년 봄에는 이찬 김지정(金志貞)이 모반해 역시 왕궁이 포위됐다. 이에 상대등 김양상(良相, 내물왕 10대손)과 이찬 김경신(敬信, 내물왕 12대손)이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을 물리쳤다. 하지만 이들은 혜공왕과 왕비까지 살해한다.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니 바로 선덕왕이다. 선덕왕(宣德王) 때에는 이찬 김주원(周元)이 수석 재상으로 있었다. 함께 군사를 일으킨 김경신이 김주원의 동생으로 차석인 각간으로 임했다. 김경신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

“머리에 썼던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쓰고 손에 12현금(絃琴)을 잡고 천관사(天官寺)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꿈을 깨어 사람을 시켜 짐을 챙겨서 짐승이 말하기를 두건을 벗는 것은 관직에서 쫓겨날 조짐이요, 12현금을 잡은 것은 칼을 쓸 조짐이요, 우물에 들어간 것은 옥을 들어갈 조짐이외다.”

김경신은 꿈에서 깨어 매우 걱정하며 문을 잠그고 집 밖으로 출입하지 않았다. 아찬 여삼(餘三/山)이 와서 배알하겠다고 연락했지만 그는 병을 핑계로 거

절하기도 한다.

그러자 아찬이 두 번째 연락해 “꼭 한 번만 뵈기를 바라나이다”고 말했다.

김경신이 승낙하자 아찬이 말하기를 “공께서 지금 꺼리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했다.

김경신이 꿈 내용을 모두 말하니 아찬이 일어나 절을 했다.

“이 꿈은 아주 길한 꿈입니다. 공께서 왕 위에 올라가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공을 위해 꿈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김경신이 좌우를 물리고 해몽을 청했다. 아찬이 말하길 “두건을 벗는 것은 자기 뒷자리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흰 갓을 썼다는 것은 면류관을 쓸 조짐이요, 12현금을 들었다는 것은 12대 손자에게 왕위를 전한다는 조짐이요, 천관사 우물에 들어간 것은 대궐에 들어갈 조짐입니다”고 했다.

김경신이 말했다. “내 뒷자리에는 주원이 있다. 내가 어떻게 뒷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아찬이 말했다. “북천(北川)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될 것입니다.”

김경신은 아찬의 말대로 하였다. 얼마지나지 않아 선덕왕이 승하하자 여러 대신들은 김주원을 받들어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대궐로 맞아 들이려는 그때였다. 당시 김주원의 집은 왕궁에서 북쪽 2리 지점에 있었다. 큰 비가 내려 앞천 물이 넘실거리며 김주원은 왕궁에 도착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무릇 임금의 대위(大位)에 나아가기란 실로 인묘(人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폭우(暴雨)를 보면 하늘이 혹시 주원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닌가? 지금 상대등 경신은 전왕의 아우요, 덕망이 본래 높아 인군(人君)의 체모(體貌)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신공(身空) 즉 ‘몸은 실체가 아니다’는 의미와 ‘사늩가’가 결합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신공은 사늩가의 형식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할까? 사늩가 중에서 신공사늩가가 가장 널리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양식이었을까? 초기불교의 사념처(四念處) 수행에서는 몸이 부정하고(身是不淨), 느낌이 괴롭고(受是苦), 마음이 무상하고(心是無常), 법은 무아(法是無我)임을 역념하라고 역설한다.

일찍이 ‘신공사늩가’를 지었다면 원성왕은 누구보다도 인상 무상을 깊이 체험한 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운명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영재사는 ‘사늩가’를 지어 부름으로써 60여명의 도적들을 설득시키게 된다. 이 ‘우적가’를 살펴보면 희유하게도 결락자가 두 글자(口口)가 있다.

“제 마음에 모든 형상 모르고 지내오던 날/ 멀리 口口 지나치고 이제는 숨어서 가고 있노라/ 오직 그르친 파계승이여/ 두려워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노니/ 이 칼이 사 지내고 나면 좋은 날이 오련만/ 아!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2. 영재사와 사늩가(詞謠歌)

(삼국유사) 수록 향가 14수 중 화랑 또는 승려 혹은 주술사 등에 의해 지어진 것은 7수이다. 나머지 반은 서동, 농용, 신중, 처용, 득옥곡, 희명, 미상(종유) 등 일반인이 의해 지어졌다.

당시에는 향가와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 각기 구분돼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그룹을 넘나든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경주 앞천의 현재 모습. 앞천의 범람으로 유력한 왕위 계승자인 김주원은 왕이 되지 못하고 김경신이 왕에 오르니 원성왕이다. 원성왕 때에는 인생사가 운명적으로 이뤄진다는 사늩가가 유행하는데 이 사늩가를 주제로 영재가 다시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우적가다.

원성왕 알현 범람으로 운명적 즉위

당시 신라사회 운명 다룬 사늩가 유행

영재, 도적들 ‘우적가’ 불러 출가시켜

그런데 여기서 결락된 세 글자인(口口口)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사늩가(詞謠歌)가 아닐까?

사늩가는 향가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말 그대로 ‘가사 중의 가사’ 혹은 ‘노래 중의 노래’를 뜻한다. 창조-유치-파괴의 의미를 담고 있는 태초의 소리인 ‘음’처럼, 향가의 언어는 밀해(密核)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가의 성격은 ‘치리가(治理歌) 내지 ‘주가(呪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된다. ‘주가’와 ‘치리가’는 ‘병이나 해를 기원하고[呪] 다스리는[治] 노래’란 의미다.

그렇다면 ‘신공(身空) 즉 ‘몸은 실체가 아니다’는 의미와 ‘사늩가’가 결합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신공은 사늩가의 형식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할까? 사늩가 중에서 신공사늩가가 가장 널리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양식이었을까? 초기불교의 사념처(四念處) 수행에서는 몸이 부정하고(身是不淨), 느낌이 괴롭고[受是苦], 마음이 무상하고[心是無常], 법은 무아[法是無我]임을 역념하라고 역설한다.

일찍이 ‘신공사늩가’를 지었다면 원성왕은 누구보다도 인상 무상을 깊이 체험한 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운명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영재사는 ‘사늩가’를 지어 부름으로써 60여명의 도적들을 설득시키게 된다. 이 ‘우적가’를 살펴보면 희유하게도 결락자가 두 글자(口口)가 있다.

“제 마음에 모든 형상 모르고 지내오던 날/ 멀리 口口 지나치고 이제는 숨어서 가고 있노라/ 오직 그르친 파계승이여/ 두려워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노니/ 이 칼이 사 지내고 나면 좋은 날이 오련만/ 아!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善鄉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련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口口’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오직 요만한 선(善)은 새 집이 안 되느니라.” (양주동)

“제 마음의/ 모습이 볼 수 없는 것인데/ 일월조일(日月鳥遊) 달이 난 것을 알고/ 지금은 수풀을 가고 있습디네/ 다만 잘못된 것은 강호(強豪)님/ 머물러 하신들 놀라겠습디나/ 병기(兵器)를 마다하고/ 즐길 법(法)을랑 듣고 있는데/ 아아, 조만한 선업(善業)은/ 아직 덕도 없습디네.” (김완진)

향가 중 유일하게 두 글자의 결락자가 있으며 연구자들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르다.

3. ‘우적가’의 해석

이 노래를 「우적가」라 부르게 된 것은 일연의 표제어 ‘영재 우적(永才遺蹟)에 근거한다. 영재사는 만년에 은거하려고 대련령에 이르러 도적을 만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영재(永才)의 어원에 대해 양주동은 ‘영(永)은 ‘길[長]이고 ‘재(才)는 ‘치(인명집미어) 또는 ‘째’이므로 ‘순차(順次)를 뜻한다고 했다. 반면 최철은 ‘향가를 잘 짓는 인물’ [善鄉歌]인 ‘영언지재(永言之才)라고 하였다.

60명의 도적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박노준은 “화랑단의 잔비로서 권력쟁탈에서 실패한 일단의 반체제세력”이라고 보았다.

최성호는 “지성과 감성을 갖춘 조직적 집단으로 차원높은 목표를 지닌 도둑”이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이용제는 “정치권에서 소외된 주원(周元)계, 특히 헌창(憲昌)계의 일파”라고 보았으며, 김승찬은 “영재가 성숙경계(聖俗境界)에서 일어난 갈등과 같은 모든 마음을 도적 60인에 비유”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황패강은 “신라의 병리적 현상으로 변방에서 출몰하는 단순한 도적”이라고 보았다.

‘우적가’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지현영은 “우적가의 첫 절은 무명(無明)·알라야

식(識)을 상징하고, 둘째 절은 정진(精進)·사생(死生)의 경계를 망황하는 마음의 신화적 비약, 종결구에서 도적을 깨닫도록 한 범열에 사무친 정각의 심경을 노래”했다고 보았다.

반면 장진호는 “칼부림하는 신라사회를 불교로 교화하기 위한 방편의 노래로서 도적 60명은 붓다가 성도 후 처음으로 교화한 제자의 수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김동욱은 “미륵정도에의 회귀를 읊은 노래”로 보았고, 윤영옥은 “도적까지 연민(憐憫)하는 고도의 인간적 서정시로 보았다.

아무튼 영재가 노래를 부르자 도둑들은 그 뜻에 감동돼 그에게 비단 두 단을 선물하였다. 영재는 웃으며 앞으로 나아가 사양하면서 말하였다.

“재물이란 지옥의 근본임을 알고 장차 깊은 산으로 피하여 일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찌 감히 받겠는가?” 이에 그것을 땅에 던져 버렸다.

도둑들이 또 그 말에 감동되어 모두 검과 창을 버린 뒤 머리를 깎고 그의 제자가 되어 함께 지리산에 은거하여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영재의 나이는 거의 90이었으니 원성왕 때의 일이다. 만약 영재의 가사를 듣고 감동돼 출가했다면 이는 범문의 성격이 강하다. 이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범문적 성격을 지녔다면 이것은 원성왕이 지은 적이 있다는 ‘신공사늩가’ 형식이 아니었을 싹다.

“내 마음의/ 참모습을 모르고 살았던/ 날들이 멀리 새 달아나듯 지나서야 깨달아 알고/ 이제는 남악에 가고 있노라/ 다만 그릇된 너희들[破戒主]을 만나/ 두려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무기야 아무렇지도 않는데/ 좋은 세월을 바라 살아감이 어떨까/ 비록 죽지만 아아! 오직 한 가지 한은/ 아스라한 은둔처에서 도 닦기 전에 죽는 것이로다.”(이범교)

이들 도둑들이 신라 중고기의 막바지에 일어났던 정치적 소외자들이든 아니든 간에 ‘우적가’는 향가 중 가장 불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원성왕 대에 있었던 ‘경찬사늩가(慶讚詩謠歌), ‘신공사늩가(身空詞謠歌)처럼 ‘우적가’는 ‘사늩가’ 계열의 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연은 7언 절구를 통해 이런 영재를 이렇게 기리고 있다.

“지팡이 짚고 산으로 들어가니 뜻 더욱 깊는데/ 비단과 구슬로 어찌 마음 움직일까/ 녹림(綠林)의 군자(君子)들이 그런 선물 주지 마라/ 지옥의 근본은 다름 아닌 몇 품의 재물이네.”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지팡이 짚고 산으로 들어가니 뜻 더욱 깊는데/ 비단과 구슬로 어찌 마음 움직일까/ 녹림(綠林)의 군자(君子)들이 그런 선물 주지 마라/ 지옥의 근본은 다름 아닌 몇 품의 재물이네.”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참고문헌 김부식, 《삼국사기》, 신화출판사 1978; 2007; 2010. 일연, 《삼국유사》, 권상호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기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이범교, 《삼국유사의 총합적 해석(성)》(2005; 2007).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